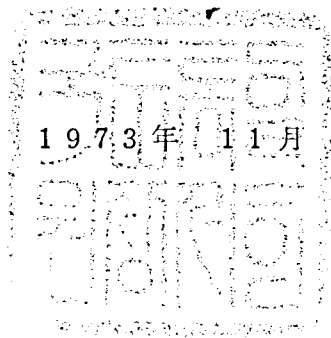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1973年度 下半期 學術用役에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日

全南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

研究者 丁 得 圭

————— 目 次 —————

I . 序 論	3
II . 韓 國 的 對 UN 政 策	7
III . 北 韓 的 對 UN 政 策	17
IV . 本 論	21
1 . 標 本 解 說	21
2 . 標 本 分 析	38
V . 對 備 策	41
VI . 結 論	45

I . 序 論

1973年 6月 23日 朴 正熙大統領은 [平和統一 外交政策 特別宣言]을 内外에 發表했다。 이 宣言의 序頭에서 그 동안 推進해 온 南北對話의 經驗과 國際情勢의 推移에 비추어 民族의 宿願인 祖国統一의 与件을 실질적으로 改善하기 爲해 容易하고 實踐可能한 問題부터 하나씩 解決해 가면서 相互間의 不信을 信賴로 代替해 가야한다고 前提하고 平和統一을 爲해 韓半島에 있어서 平和維持, 南北韓間의 内政不干渉, 相互不可侵, 北韓의 UN을 비롯한 國際機構 參加不反對, 互惠平等의 原則下에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國家들의 韓國에 對한 門戶開放促求등을 內容으로한 7個項의 平和統一 外交政策을 宣言함으로써 마침내 韓國은 冷戰 秩序下의 名分 固守型的인 外交패턴에서 現實主義的인 實利外交으로 一大轉換을 하게 되었다。 特히 이 宣言中 第2項에서 [韓半島의 平和는 반드시 維持되어야 하며 南北韓은 서로 内政에 干渉하지 않으며 侵略을 하지 安해야 한다]는 大原則을 闡明하고 이어 第5項에서 [國際聯合의 多數 會員國의 뜻이라면 統一에 障礙가 되지 않는다는 前提下에 우리는 北韓과 함께 國際聯合에 加入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으며 우리는 國際聯合 加入前이라도 大韓民國代表가 參加하는 國際總會에서의 韓國問題討議에 北韓이 같이 招請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對北韓 關係事項은 統一이 成就될 때까지 過渡的 期間中の 暫定措置로서 決코 우리가 北韓을 國家로 認定하는 것이 아님을 分明히 해둔다고 못 박고 있다。

6.23 外交宣言은 70年 8.15 宣言에서 表明되었던 南北間의 緊張緩和를 爲한 [善意의 體制競争]提議의 具體化라 할 수 있는바 이 宣言

으로 南北韓問題가 現實主義的 立場에서 接近될 수 있는 條件이
 마련된 셈이며 同時에 平和共存과 緊張緩和로 象徵되는 現今의 國
 際潮流에 能動的으로 適應하기 위한 政策轉換인 것이다. 同宣言이
 國際政治的 現實에 積極적으로 対処하기 위한 韓國外交의 進取的이
 고 建設的인 政策選擇이라고 하는 點에서 海外의 論評도 鼓舞的이
 긴 하나 이 政策의 具體的인 展開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問題點이
 없을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이 政策內容이 事實上 南北韓의
 分斷을 固定化시키는 措置를 取하였다고 論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對하여 國務總理는 國會質疑에서 [一部 國際社會에
 서 두個의 韓國으로 생각하려는 것은 東西獨의 例때문인것 같으나
 獨逸과 우리의 境遇는 다르다]고 前提하고 [獨逸은 One Nation,
 Two States, Two Governments 이지만 우리는 One Nation, One
 State, Two Governments로 表示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지
 만 만약 北韓이 UN에 加入되고 北韓에 對한 友邦의 關係改善이
 이루어진다면 事實上 統一과는 二律背反的인 祖國分斷의 固定化가
 되어 버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點에서
 北韓은 內心으로는 加入을 은근히 바라고 있고 또 언젠가는 이를
 受諾하게 될망정 表面上으로는 南北韓 UN 同時加入이 民族分斷을
 永久化할 可能性이 있다고 떠들면서 現實固定化의 責任을 轉嫁시키
 려 하고 있다.

그러나 統一에 障礙가 되지 않는다는 前提下에 北韓과도 UN에
 同時加入을 할 用意가 있다고 하는 것은 統一目的을 達成하기 위
 한 手段으로 取해신 過渡期的 暫定措置에 不過하다는 것을 明白히
 하기 위한것 같다. 이것은 다른 말로 南北韓이 UN에 同時加入
 이 實現되었다는 事實로서 統一에 障礙가 되는 [두個의 韓國論]

[두 개의 國家]의 主張을 排除하기 위한 豫備的 措置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前提條件은 UN 一般會員國과의 關係에 對한 意味보다도 實은 韓半島의 兩 當事國關係에 關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어떻든 이 宣稱은 南北關係의 發展的 改善을 위해서나 變化된 國際政治의 構造的 力学關係에서나 能動的이고 合理的인 政策方向의 設定으로 評價되며 아울러 民族的인 協力形態를 創出하고자한 自主的인 外交政策宣稱이라 하겠다. 그러나 問題는 얼마前까지 韓國 問題討議에 있어서 南北韓 同時招請까지도 反對해 왔던 우리政府의 立場이 이제 完全히 뒤바뀐체 오히려 南北韓 UN 同時 加入論을 主張하고 있으므로 우리社會의 指導的 位置에 있는 知識層에서도 이제 우리 스스로가 北韓當局을 國家로 承認해 버린것이 아니냐하는 疑懼心과 한가닥의 不安마저 느끼고 있는 傾向이 없지도 않은 듯 하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流動的인 國際情勢의 變化속에서 對北韓政策을 어떻게 選擇하는 것이 國家의 安保와 統一에 利로운 것인가를 理解하지 못하는 過程에서 빚어지는 問題點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反共이 우리의 生存의 基本原理로 믿어왔던 固定觀念에서는 北韓을 孤立하고 封鎖하는 것이 國民의 道理이며 義務라고 믿어왔었던 것인데 北韓과 어깨를 나란히 UN에 加入한다고 하는 말은 驚愕을 禁치 못하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一種의 不安感마저 느끼게 됨은 當然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反共이라든가 北韓에 對한 憎惡感을 生理的으로 지니고 있는 國民大衆들에게 이러한 政策轉換과 政策選擇이 왜 不可避인 것인가를 理解시키는 問題는 緊急한 課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事態에 対応하고 또 問題點을 診斷하기 위한 先行作業으로 大學生 言論人 教師 公務員등 知識層을 對象으로 設問에 依한 調査를 試圖했다。

II. 韓國의 對 UN 政策

國際聯合에 있어서 會員國 加入問題는 샌프렌 시스코 會議以來 重大한 問題로 提起되었는데 東西冷戰의 激化는 會員國의 加入問題를 더욱 複雜하고 어려운 冷戰의 Issue로 取扱해 왔다。 UN에의 加入 資格과 그 節次에 關해서는 憲章 第4條 I項과 2項에 規定되어 있으나 元來 會員國 普遍性의 原則(Universalism) 따라 國際社會에 存在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主權國家들에게 加入의 門戶를 開放해 주어야 한다는 立場과 加入에는 一定한 條件을 提示해 놓고 이 條件들을 具備한 意思있는 國家(Willing States)에게만 會員國 資格을 賦與하고 그렇지 않는 國家에게는 加入을 制限하거나 保留해야 한다고 하는 立場이 있는데 UN의 加入條件은 UN의 前身인 國際聯盟보다 制限의이고 選擇的인 것이 特色이라 하겠다。¹⁾

UN에 加入되기 爲해서는,

첫째, 憲章의 義務를 受諾하고,

둘째, 憲章의 義務를 遵守할 意思와 能力을 가질 것이며,

셋째, 平和愛護國(Peace-Loving States)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條件이 充足되면 安全保障理事會의 勸告에 依하여 總會의 決定으로 加入이 認定되도록 되어 있는데 加入問題에 있어서 普遍的 加入과 限定的 加入이라는 두가지의 矛盾된 思想과 主張은 東西對立을 더욱 激化하는 要因이 되기도 했고²⁾ 때로는 分斷國의 問題를 東西冷戰의 產物로 取扱하여 끝까지 加入을 封鎖해 왔다. 憲章의 基本精神에 依한 會員國 加入問題는 普遍性의 原則에 立脚해서 다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특히 分斷國의 加入에 關해서는 必要以上の

政治的 制約을 加했기 때문에 1948年以來 加入條件을 具備한 國家들이 UN의 문턱에서 서성거리야 했던 境遇가 적지 않으며 甚至於是 一括加入흥정 (A Package Deal) 이 ㅅ聯이나 美國에 依해 提案되기도 했다。 1950年 인도네시아의 加入을 除外하고는 1955년까지 모든 加入申請은 拒否되었으며 1948年 12月 總會에서 韓半島에 있어서의 唯一한 合法政府로 集團的 承認 (Collective Recognition) 을³⁾ 賦與받았고 그 後 多數國家로부터 承認을 받았던 大韓民國도 1949年 1月19日 加入申請을 냈지만 ㅅ聯의 拒否權行使로 계속 加入이 挫折되어 왔던 것이다。⁴⁾ 이와같이 韓國이 UN에 加入 못하는 原因은 美 ㅅ 兩大陣營의 冷戰으로 말미암아 安保理事會에서 ㅅ聯의 同意를 얻지 못한데 基因하는데 反해 人口 百萬未滿이며 冷戰과는 關係없는 新生國들은 容易하게 UN에의 加入이 實現되었던 事例를 볼 때 會員國의 加入問題에 얼마나 많은 拒否權이 濫用되었는가를 짐작 할 수 있다。

韓國이 UN과 不可分의 密接한 關係를 맺게 된 것은 大韓民國 政府가 탄생되는 過程에서 UN이 그 産婆役을 맡았다고 하는 因緣도 있지만 그보다는 6.25 動亂으로 더욱 密接한 關係를 맺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UN은 1947年 第2次 UN總會 以後 20年동안을 繼續해서 每年 韓國에 對한 UN의 目的을 確認하는 決議를 確認해 왔다。 즉 代議政治體制下의 統一獨立 民主韓國政府를 平和的 方法으로 樹立하고 同地域의 國際的 平和과 安全을 完全히 回復하는데 있다고 하는 內容의 決議였다。 이에 對하여 ㅅ聯등 共產國家들은 同決議案이 非現實的이고 總會에서의 一方的인 決議라고 非難하였지만⁵⁾ 西方側 國家들의 敎的 優位는 大韓民國의 唯一性을 窺발시켰고 또 大韓民國 代表만이 읍세버로서 總會에 參席하여 韓國立場을 開陳 할 수 있도

록 支持되었다。 그러나 第 15 次 UN 總會때부터 新生 亞阿諸國들이 大舉 UN 에 進出하게 됨으로서 東西兩陣營을 中心으로한 UN 内の 勢力分佈에 變化를 갖어 오게 되었다⁶⁾ UN 內에서 韓國問題를 다루는 것이 새로운 局面에 접어들게 되어 큰 試鍊을 받게 되었다。

1961年 第 16 次 總會 後半會期에서 美國代表 스티븐슨 (Adlai E. Stevenson) 氏는 大韓民國 代表를 第一委員會의 韓國問題 討議에 參席시키자는 決議案을 提出하자 蘇聯代表는 大韓民國 代表와 소위 朝鮮민주주의 인민공화국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代表를 同時에 招請하자는 決議案을 提出했으며 그 다음날 印度代表는 美國이 提出한 決議案에 對하여 [大韓民國代表]라는 語句 다음에 [朝鮮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語句를 插入하자는 修正案을 낸바 있다。 이에 對하여 美國은 다시 印度 修正案에 [北韓當局이 먼저 UN 憲章의 規定에 따라 UN이 韓國문제에 對하여 措置를 取할 수 있는 權能과 權威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大韓民國이 實踐 闡明한바와 같이 明確히 受諾한다는 것을 條件으로] 그 語句를 插入하자는 再修正案을 提出하여 이 案이 贊成 59, 反對 14, 棄權 23 으로 採択되자 北韓當局은 外相名義로 [條件 附 招請은 國際聯合 憲章의 原則에 違反되는 不合理的 兇事이므로 北韓은 恒常 UN을 支持하였으며 韓國國民이 權利인 韓國問題討議에 參席하기 위해 代表의 派遣을 希冀한다]고 罷文을 寄왔다。 그러나 北韓의 主張은 總會에서 認定받지 못했으나 60年代에 접어들면서 韓國問題 討議에 南北韓代表의 條件附 同時招請案이 採択되었다고 하는 事實은 UN 内の 흐름을 明確히 反映하는 것이었다。 勿論 北韓이 條件附 同時招請案을 受諾하지 않았으므로 大韓民國만이 單獨으로 招請될 수 있었지만 그 동안 共產側은 UN 에서의 韓國問題

討議를 否定해 왔고 항시 議題를 바꾸어 가면서 韓國에 關한 決議를 反對해 왔는데 그들의 主張을 要約해 보면,

첫째, 南北韓 無條件 同時 招請

둘째, UNCURK 解體

셋째, 外國軍 撤收

넷째, 韓國問題 討議終決案 등으로 西方側 主張에 맞서 왔다.

이것은 冷戰의 遺産으로서의 韓國問題에 對한 討議에 喪證을 느끼고 있는 非同盟 中立國들에 對하여 韓國에 對한 關心을 흐리게 하려는 意圖인 것이다. UN에서의 統韓決議의 趨勢를 보면

1953年 8次 UN總會에서는 贊成이 全會員國 60個國中 92%를 차지했던 것이 會員國數가 增加됨에 따라 贊成國數도 相對的으로 漸次 下落하여 1960年代에 이르러서는 50%로 떨어진데 反히 反對國數의 比率이 10%를 上廻하고 棄權 및 欠席 등은 30%를 上廻함에 이르렀고, 1968年의 第23次 總會부터 韓國問題는 裁量上程기로 되었다. 그 동안 韓國代表 招請案에 對한 年度別 投票趨勢를 보면 다음과 같다.

韓國單獨招請案에 對한 年度別 比率

總會	年度	投票結果				會員國數	贊成 %	反對 %	棄權 欠席 %
		贊	反	棄	欠				
13	1958	51	10	16	4	81	62.9	12.5	24.6
14	1959	49	10	15	7	82	59.7	13.5	26.8
15	1960	59	14	23	9	99	59.5	8.2	32.3
16	1961	63	18	19	3	104	61.1	17.7	21.2
17	1962	65	9	26	10	110	59	8.3	32.7
18	1963	64	10	24	13	111	57.7	7	35.3
19	1964	-	-	-	-	-	-	-	審議中止
20	1965	50	20	20	27	117	42.7	17.2	40.1
21	1966	63	24	21	14	122	51.6	19.7	28.7
22	1967	58	28	25	11	122	47.5	22.9	29.5
23	1968	67	28	28	3	126	53.1	22.9	24.6
24	1969	65	31	26	4	126	51.6	24.6	23.8
25	1970	63	31	25	8	127	49.6	24.3	26.1
26	1971								} 審議延期 %
27	1972								

위 票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大韓民國 單獨招請案도 第 13 次 總會當時에 全會員國의 62.9 %의 贊成을 얻었던 것이 漸次 下落하여 第 15 次 總會에서는 條件附 南北同時 招請案이 可決된바 있고 棄權 및 欠席의 比率이 1965年 第 20 次 總會때는 40.1 %를 記錄한바 있다. 따라서 1962年以後 南北韓 同時招請案에 對한 會員國의 年度別 投票動向을 보면 다음과 같다.

總會	年度	投票結果				會員國數	贊成 %	反對 %	棄權 欠席 %
		贊	反	棄	欠				
17	1962	29	56	14	11	110	26.4	50.9	22.7
18	1963	25	44	20	12	111	22.5	48.6	28.9
19	1964	-	-	-	-	-	-	-	-
20	1965	28	39	22	28	117	23.9	33.3	42.8
21	1966	34	53	19	16	122	27.9	43.4	28.8
22	1967	37	50	24	11	122	22.1	40.9	28.6
23	1968	40	55	28	3	126	31.7	43.6	24.6
24	1969	40	55	27	4	126	31.7	43.6	24.6
25	1970	40	54	25	8	127	31.4	42.4	25.9

南北韓 同時招請案 審議에 있어 第 17 次 總會當時 贊成이 全會員國中 29 個國으로 全體의 26.4 % 였던것이 第 23 次 總會 及 第 24 次 總會 때에는 贊成國數가 增加하여 40 個國으로 贊成과 反對의 差는 不過 15 個國으로 좁혀졌다. 結局 全會員國의 31.7 % 가 贊成하고 43.6 % 가 反對했으며 24.6 % 가 棄權乃至는 欠席을 하고 있는 셈인데 이것은 UN 內의 큰 뿌익인 匪. 阿新生非同盟들이 西方側의 主張에 無關心 하거나 아니면 意識的으로 外面하는 傾向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流動的인 國際情勢下에서 冷戰의 所産인 韓國問題를 如何히 有利하게 展開할 것이냐 하는 것은 韓國外交가 當面한 Vital Issue 인 것이다. 지금까지 UN 의 前衛役을 맡아오던 美國도 이제는 UN 의 票決過程에서 棄權 또는 否票를 던지는 率이 75 % 나 된다는 사실에서 볼 때 強大國들은 그들 相互關係에 있어서 直接的인 利害關係가 없는 問題에 無分別하게 介入해서 이들 스스로가 追

求하고 있는 緊張緩和政策에 阻害가 되는 일들을 할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韓國問題의 解決方法 亦是 50年代의 冷戰體制下의 패턴에서 多元的인 自主의패턴으로 對UN戰略을 轉換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國際環境의 變化와 狀況下에서 70年 8月 朴 大統領은 8.15光復記念慶祝辭를 통해 [北韓이 韓國의 民主統一獨立과 平和를 위한 UN의 努力을 認定하고 UN의 權威과 權能을 受諾한다면 UN에서의 韓國問題討議에 北韓이 參席하는 것도 굳이 反對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提案하여 많은 國家들로 부터 共感과 支持를 얻었지만 現實的인 事態에 비추어 볼 때 이 提案이 現在의 南北關係를 改善하는데 決定的인 도움이 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北韓이 UN의 權威과 權能을 認定하게 된다는 것은 結局 韓半島에서 韓國이 唯一한 合法政府라고 決議했던 UN의 承認을 받아 드리는 것이 되고 또 UN監視下의 自由選舉를 통한 民主的 代議體制에로의 統一案을 受諾하는 結果가 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中共이 UN에 加入되고 UN會員國의 勢力分布가 달라진 70年代에 들어서 西方側은 오히려 守勢的 立場에서 韓國問題 討議上程을 延期하는 阻礙作戰을 쓰게 이르렀다. 結局 第26次 總會때와 마찬가지로 27次 總會때에도 [韓國問題 不上程案]이 採択되었는데 韓國문제 討議 延期案에 對한 票決狀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總會	年度	投票結果				會員國數	贊成 %	反對 %	棄權 欠席 %
		贊	反	棄	欠				
26	1971	48	28	22	12	130	52.3	21.5	26.2
27	1972	70	35	21	6	132	53.0	26.5	20.5

그러나 韓國의 對UN 戰略과 南北關係의 새로운 設定에 있어서 決定的인 轉換點을 이룬것은 지난 6월에 朴正熙 大統領에 依해 內外에 宣布된 6.23 平和統一 外交原則의 宣言이라 하겠다。 이 宣言은 過去 四半世紀동안 UN 戰略으로 固守되어오던 唯一 合法性의 主張을 實質적으로 後退시키고 南北韓이 UN에 同時加入할 수 있다는 南北關係의 現實化宣言으로서 分明히 코페르니크스의인 政策轉換이라 하겠다。 勿論 南北韓 UN 同時加入에 따른 前提條件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이 重大한 宣言을 發表하게 된 背景으로서는 分斷國의 同時加入을 要求하는 UN 普遍性의 原則에 順應하면서 韓國에 對한 支持의 幅을 넓힘으로서 알제리아案에서 共產國家들이 노리고 있는 駐韓外軍撤收案을 否決시키며 아울러 北韓이 UN에 加入토록 하여 憲章의 基本精神을 遵守케 함으로서 韓半島에서의 緊張狀態와 武力挑發을 排除 할 수 있다는 長期的眼目的 考慮에서 取해진 것으로 본다。 西方側은 스스로 UNCURK를 自進解體토록 하여 年例적으로 共產側의 口說과 攻擊을 받아왔던 Target를 除去하도록 했다。

北韓은 지난 5월 UN 산하의 專門機關인 WHO에의 加入을 認定받음으로서 UN의 慣例에 따라 淸서버資格을 얻게 되었고 이번 第28次 UN 總會는 처음으로 南北韓이 同席한 가운데 韓國問題를 다루게 되었다는 點에서 우리의 對UN 政策의 慎重性이 더욱 強調되어 設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韓國이 唯一性만을 固執한다는 것은 事實上 無意味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이럴바에야 韓國 스스로가 南北韓 UN 同時加入을 宣言하여 主導的인 立場을 取하면서 事態에 對備하는 것이 우리의 立場을 強化할 수 있다고 判斷한 것 같다。

〔國際聯合의 多數 會員國의 뜻이라면 統一에 障礙가 되지 않는

다는 前提下에 우리는 北韓과 함께 國際聯合에 加入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 우리는 國際聯合 加入前이라도 大韓民國 代表가 參席하는 國聯總會에서의 <韓國問題> 討議에 北韓側이 招請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고 宣言한 것은,

첫째, UN의 權能을 認定하며 그 意思를 尊重한다는 우리 外交政策의 基本原則에 따른 措置이며,

둘째, 緊張緩和와 國際協調에 積極的으로 寄與하려는 우리의 國際協調精神의 發現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提議에 對한 反應으로 北韓側은 南北韓 UN 同時加入提議를 拒否하고 逆으로 南北大民族會議構成과 聯邦制樹立을 들고나와 南北韓 單一代表의 稱號만을 主張하고 있을 뿐이다。

會期初에 美. 英. 日 등 友邦 20 個國들이 提議한 [韓國의 平和保障과 統一促進에 關한 決議案] 과 소련 中共 알제리아等 共產側 22 個國이⁷⁾ 提議한 [韓半島의 自主平和統一 促進을 위한 有利한 條件造成]⁸⁾ 이란 두 個의 決議案이 팽팽하게 對決되리라고 豫想되었는데 마침 두 決議案이 單一議題로 統合되어 UN 議題로 採擇되는데 異議없이 滿場一致로 通過되었고 이것은 討議의 간결화를 圖謀하기 위한 것으로서 韓國問題로 因하여 惹起될지도 모르는 東西間의 격돌과 論爭을 避하자는 措置임에 틀림이 없다。 조종히 韓半島問題를 處理하기 위해 強大國들 間에 背後調整과 交涉이 있었음은 H. Kissinger 美國務長官의 記者會見 內容에서도 짐작 할 수 있는 바이다。

그래서 10月 1日 UN 政治委員會에서는 韓國問題 討議에 있어서 南北韓을 無條件 同時招請하자는 案을 단 30 抄만에 滿場一致로 決議 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번 總會에서는 韓國問題로 因하여

例外없이 東西의 對決과 격돌이 不可避 할 것이라고 믿었던 豫想
을 完全히 뒤엎고 UNCURK의 自進解體를 받아들이고 7.4 南北共同
聲明을 바탕으로 南北間의 自主平和統一을 위한 對話와 交流를 促
進해야 한다는 성명을 滿場一致로 通過시킬 豫定이라 한다。

結局 問題는 急變하는 國際情勢에 對処 할 수 있는 自主外交力
量의 진실한 構築이 時急하며 그렇기 위해선 汎國民的 支持와 信
念위에서 對UN外交가 設定되고 發展되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Ⅲ. 北韓의 對 UN 政策

北韓의 對 UN 政策은 統一政策의 一環으로서 基本的으로 對兩 赤化統一戰略에 目標을 두고 있는 것이 그들의 一貫된 特色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北韓의 UN 政策이 노리고 있는 궁극적 目標은 韓半島에 있어서 南韓의 唯一性과 合法性을 뒤엎고 아울러 UNCURK 解體와 駐韓外軍의 撤去를 實現하여 南朝鮮革命路線에 依한 兩韓革命의 力量을 形成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것이 北韓의 UN 政策이라고 할만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北韓 當局은 UN에서 認定을 받지 못한 存在인데다가 UN을 外面해 온 無賴漢으로서 계속 UN에 挑戰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UN 政策을 갖일 수도 없었다. 그러나 소聯과 中共에 업혀서 UN에 그들의 意思를 反映해 온 程度니까 UN 밖에서 間接적으로 UN과의 關係를 맺고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最近에는 從來의 否定的인 立場에서 積極적으로 UN에 接近하는 기미마저 보이기도 한다. 한가지 興味로운 問題는 北韓의 對兩戰略과 이에 따른 對 UN 政策의 相關係인바 北韓은 주로 對兩戰略의 手段으로 UN 政策을 樹立하고 있기 때문에 必要치 않으면 UN을 根本적으로 否定하다가도 必要하다고 判斷될 때에는 UN의 權能을 認定하겠다는 態度를 取하고 다시 翻覆할 必要가 있으면 서슴치 않고 否定해 버리는 一慣性없는 政策을 取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가지 例로서 韓國이 既加入하고 있는 UN 專門機構인 WHO에 恨死코 北韓이 加入해 놓고도 曠상 UN 同時加入의 길을 터 놓자 同時加入은 하지 않겠다고 態度를 突變하는 北韓의 意中은 果然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北韓은 앞서 指摘한바와 같이 그

들은 對南赤化統一을 위해 UN을 最大限으로 利用하겠다는 態度임에
는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北韓의 UN 政策과 그들의 統一戰略을
同時적으로 檢討해 보는 것은 北韓의 眞意를 把握하는데 크게 도
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最近 劇적으로 變化하는
國際情勢속에서 北韓의 對UN態度가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인
가를 考察하기 위해 便宜上 1970年の UN總會를 基準으로 하여
그 以前과 以後의 UN 政策을 概觀코자 한다.

먼저 第25次 UN總會時까지 UN에서 韓國問題는 大韓民國의 单独
招請裡에 UNCURK 報告書에 基礎한 對北韓의 糾彈的인 統韓決議案의
確認이라는 形式으로 韓國側의 一方的인 優勢下에 處理되어 왔기
때문에 北韓은 根本적으로 UN을 否認하는 立場에서

(1) 駐韓 UN軍의 撤收과 美軍撤去를 主張해 왔고,

(2) UN이 이미 採択한바 있는 韓國問題에 關한 諸決議의 取消
를 要求하여 韓國政府의 唯一合法性을 否認해 왔고,

(3) UN의 韓國問題 討議에 있어서 憲章 第32條의 當事者 參
加規定에 따라 北韓의 參加를 要求해 왔고,

(4) 北韓은 그들의 目的을 관철하기 위해 共產國家들로 하여금
年々の으로 駐韓外國軍 撤去案, UNCURK 解體案, 韓國問題의 UN 討
議終決案, 南北韓 同時招請案등을 提起해 왔다.

그러다가 71年 第26次 UN總會에 즈음하여 四半世紀동안 斷切
되었던 南北對話가 始作되어 雙方의 來往이 거듭되고 對話가 進步
됨에 따라 한반도의 緊張이 緩和되고 民族의 念願인 國土統一의
氣運이 활기를 띠게 되는가 했더니 뜻하지 않는 9.28 宣言으로
다시 南北對話가 끊기고 있어 會談再開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그 동안 韓國은 南北間의 對立을 避하기 위해 UN에서의 韓國問題

不上程 方針을 세웠으나 北韓은 從來 그들이 企圖해오던 韓國問題의 UN 關與 排除라고 하는 否定的인 態度를 바꾸어 오히려 韓國問題의 UN 討議要求라는 能動的 態度로 轉換하기 始作했다。北韓의 이러한 對 UN 態度의 變化는 第 26 次 UN 總會에서 中共의 UN 加入이 實現되고 UN 內의 勢力構造가 變化한 가운데 緊張緩和에 따른 現狀凍結 乃至 分斷國 同時加入 趨勢에 힘 입어 南北韓 同時 招請의 實現 可能性이 增大되었다는 환경變化가 그 原因이 되고 있다고 分析 할 수 있다。

北韓의 이러한 肯定的이고 積極的인 對 UN 政策의 具體的인 內容을 간추려 보면

(1) 韓國問題 解決에 對한 UN의 役割을 期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沮害하는 勢力으로서의 駐韓美軍의 撤去와 UNCURK 解體를 要求하고 있기는 하나 더 積極的인 意味에서는 UN이 南北韓의 平和協定과 政治協商을 促求토록 해 주기를 內心 巴라고 있다。

(2) 駐韓 美軍의 撤収主張의 消極化인바 從來 北韓은 駐韓 UN 軍과 駐韓美軍의 概念을 同一視하여 無條件 駐韓美軍의 撤去를 要求해 왔는데 駐韓美軍의 駐屯은 韓美相互防衛條約에 依拠하여 계속 駐屯이 可能하기 때문에⁹⁾ 于先 現實的으로 可能的한 駐韓美軍의 UN 旗使用을 禁止시키고 다음에 美軍의 駐韓名分을 弱化시켜 그 撤収를 促進시키고자 하고 있다。

(3) 北韓은 從來 韓國問題에 關한 UN의 諸決議와 措置를 取消해 줄 것을 要求해 왔으나 이제는 UN에서 正當한 諸措置를 取消해 줌으로서 既決議된 事項들이 實質的으로 無効化되도록 하고 있다。

(4) 南北韓 UN 同時加入問題에 있어서 이미 韓國이 參加하고 있는 國際機構에 加入하려고 안간힘을 쓰던 그들이 막상 6.23 宣言으로 門戶가 開放되자 民族分斷을 永久化할 可能性이 있기 때문에 同時加入은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眞正으로 加入을 拒否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韓國의 外交的 Initiative에 끌려가는 듯한 印象을 두려워한 心理的 反作用이 아닌가 생각된다。 北韓이 1949年과 1952年에 外相名義로 UN 加入을 申請했던 일을 想起해 볼 때 名分을 찾아 加入을 願하게 되리라고 본다。 參考로 73年 9月 26日字로 發表한 北韓의 對UN 備忘錄에서도 南北韓 UN 同時加入을 反對하는 理由를 羅列하고 있는데 이 亦是 政治的 宣傳을 目的으로한 虛構的인 理論으로 一貫하고 있다。 이번 28次 總會에서도 이 중북을 團長으로한 大規模 代表團을 뉴욕에 派遣해서 兩韓을 前提한 外交行脚을 벌이고 있다。 北韓의 統一戰略이 위장된 平和攻擧를 特徵으로 해온것처럼 北韓의 UN 政策도 평화공세 爲主의 戰術이 主內容이 될 것이다。

IV . 本 論

1. 標本解説

國家利益의 增進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 外交가 技術的으로는 少數의 專門家들과 職業外交官들에 依하여 수행되어 進다 하더라도 國民的 次元에서 外交政策이 樹立되고 支持되어야 함은 再言을 費치 않는다。 더욱기 우리나라의 重大한 外交領域이 되고 있는 對 UN 外交의 境遇에는 幅넓은 國民的 支持의 바탕이 더욱 要請 되고 있는데 最近의 國際情勢가 急變함에 따라 이에 對應하는 外交政策의 轉換 亦是 不可避한 것이다。 그런데 問題는 國民이 變化する 情勢를 理解하고 果然 그 政策의 選擇이 國家利益에 어떻게 利롭다는 것을 理解하지 못하는 狀態에서 政策과 國民的인 觀念 및 國民的 與論間에 현격한 Gap이 生기는 現象은 決코 바 람직한 일이 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一例로 國民의 觀念과 信念은 아직도 두個의 韓國을 否認하는 線에 머무려 있는데 지금 까지 唯一한 合法性을 主張해오던 政府의 對 UN 政策이 갑자기 南 北韓 UN 同時加入論을 主張하고 나설때 여기서 派生되는 國民의 惡意은 對北韓觀의 動搖와 不安은 重大한 問題點으로 提起되어 進다。 지난 6.23 外交宣言에서 主唱된 南北韓 UN 同時加入問題는 知識階層의 사람들에게도 相當한 誤解를 惹起할 可能性도 있지 않 겠는가 하는 見地에서 問題點을 찾고 이에 對한 對備을 어떻게 對應 할 것인가를 究明코자 했다 (勿論 同時加入의 前提條件은 北 韓을 國家로 承認하지 않고 統一에 障礙가 되지 않는 다는 過渡 措置이긴 하지만!)。

특히 第28次 UN 總會를 앞두고 우리 國民의 重大한 關心事가

되었던 UN同時加入에 따른 國民與論을 設問紙를 通해 調査하고 그 資料를 分析 檢討하려고 試圖했다。 于先 設問對象者를 200名程度로 定하고 여러分野에서 國民大衆들에게 影響力을 며칠 前에 있는 知識層을 相對로 했는데 具體的으로 이 地域社會에서 指導的 地位에 있는 中高等學校 教師 40名, 中堅 言論人 30名, 公務員 10名, 大學生 110名, 其他(事業家) 10名을 對象으로 했다。 이 가운데서 數的으로 가장 많은 比率을 占하고 있는 大學生의 境遇에 있어서는 1,2學年과 3,4學年을 安配하여 低學年과 高學年 學生間의 意見을 모두 反映할 수 있도록 했고 低學年은 다시 男女學生으로 比率을 調整했다。 特히 高學年層에서는 學生會幹部들을 많이 設問對象으로 했음을 밝혀 둔다。

標本調査

設問 1.

貴下는 經소 國際聯合을 어떤 機構라고 생각하십니까?

※ 발호안은 全體의 %이며 앞

數字는 人員數를 表示하는 것임

(表 1)

	교사	언론인	공무원	학생	기타	계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불가결한 평화기구이다。	29 (72.4)	13 (43.3)	8 (80.0)	50 (45.5)	8 (80.0)	108 (54.0)
비정치적 분야에서만 기능을 갖는 기구이다。	3 (7.5)	3 (10.0)	1 (10.0)	20 (18.2)	2 (20.0)	29 (14.5)
강대국의 권력정치를 합리화하는 기구이다。	4 (10.0)	12 (40.0)	1 (10.0)	36 (32.7)		53 (26.5)
국제사회에 공헌이 없는 국제친선 기구에 불과하다。	3 (7.6)	2 (6.7)		3 (2.6)		8 (4.0)
부	1 (2.5)			1 (1.0)		2 (1.0)
답						
계	40 (100)	30 (100)	10 (100)	110 (100)	10 (100)	200 (100)

UN이 國際平和와 安全을 위해 不可欠한 平和機構라고 하는 意見이 54%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다음으로는 強大國들의 權力正治 (Power Politics)를 合理化하는 機構로서의 性格도 갖고 있다는 意見이 26.5%로 나타나고 있다. UN이 不可欠한 平和機構라고 하는 點에 있어서 教師들의 意見이 72.4%가 集中되고 있는데 比해 大學生들은 45.5%만이 그렇다는 意見을 表示해 주고 있다.

設問 2.

貴下는 UN이 韓國의 平和와 復興에 寄与한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表 2)

	교 사	언론인	공무원	학 생	기 타	계
대단히 크게	21 (52.5)	12 (40.0)	5 (50.0)	34 (30.9)	6 (60.0)	78 (39.0)
조 금	19 (47.5)	16 (53.3)	5 (50.0)	67 (60.9)	4 (40.0)	111 (55.5)
그렇지 않다		2 (6.7)		4 (3.6)		6 (3.0)
기 타				4 (3.6)		4 (2.0)
무				1 (1.0)		1 (0.5)
계	40 (100)	30 (100)	10 (100)	110 (100)	10 (100)	200 (100)

UN이 韓國의 平和와 6.25動亂의 戰災復興事業에 參與했기 때문에 大端히 많이 寄与했다는 意見이 全體의 39%가 되고 조금 寄与했다는 意見이 55.5% 되고 있다.

說問 3.

貴下는 韓國이 UN에 加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表 3)

	교사	언론인	공무원	학생	기타	계
그렇게 생각한다	40 (100)	29 (96.7)	10 (100)	88 (80.0)	9 (90.0)	176 (88.0)
그렇게 생각치 않는다				4 (3.6)		4 (2.0)
가입해도 좋고 안해도 무방하다		1 (3.3)		17 (15.4)		18 (9.0)
무 답				1 (1.0)	1 (10.0)	2 (1.0)
계	40 (100)	30 (100)	10 (100)	110 (100)	10 (100)	200 (100)

한국이 UN에 加入해야 한다는 意見이 全體의 88%라는 圧倒的多数意見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UN이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國際協力の 增進을 위한 軸心으로서의 役割을 할 수 있다는 肯定的인 期待 可能性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본다. UN에의 加入은 그만큼 國際社会에서 主權国家로서 떳떳하게 다른 나라들과 어깨를 맞대고 政治 經濟 社会 文化 人道等 各方面에서 活動을 할 수 있는 基本條件을 具備하게 된다는 点에서 UN 加入의 必要性이 強調되고 있는 것 같다. 特히 韓國이 政府樹立 當時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UN과의 密接한 關係를 맺어왔던 相互關聯性에서도 이러한 意見은 当然한 것으로 보아진다. 應答者中 教師와 公務員은 百% 加入의 當爲性을 認定하고 있는데 言論人과 大学生 層에서는 加入해도 좋고 안되어도 좋다는 意見이 若干 나타나고 있다. 어떠한 韓國의 UN 加入이 冷戰의 產物로 拒否되어 왔기 때문에 이젠 当然한 權利로 加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氣分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設問 4.

貴下는 韓國이 UN에 加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理由는 무엇입니까

(表 4)

	교사	언론인	공무원	학생	기타	계
韓國의 안보와 통일에 큰 영향력이 있으므로	15 (37.5)	9 (30.0)	5 (50.0)	31 (28.2)	8 (80.0)	68 (34.0)
국제사회에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	8 (20.0)	3 (10.0)	2 (20.0)	22 (20.0)	1	35 (17.5)
국제적인 협력속에 국가발전 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17 (42.5)	16 (53.3)	3 (30.0)	43 (39.1)	1 (10.0)	80 (40.0)
무		2 (6.7)		14 (12.7)	1 (10.0)	17 (8.5)
계	40 (100)	30 (100)	10 (100)	110 (100)	10 (100)	200 (100)

韓國이 UN에 加入이 되어야 할 理由로서 國際的인 協力속에 國家發展을 期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意見이 全體의 80%를 點하고 있으며 國家의 安보와 統一에 큰 影響力을 미치게 될 것 임으로라는 意見이 34%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韓國이 UN에 加入하는 것은 安보와 統一이라고 하는 政治的인 價值를 얻기 위 해서라기 보다는 非政治的인 領域에 있어서의 協力 즉 經濟的인 協力을 통해서 近代化의 遂行을 促進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더 큰 比重을 두고 있음을 알게 된다。 또 設問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分斷國인 韓國의 立場에서는 韓國이 UN에의 加入이 實現 됨으로서 韓國의 唯一 合法性이 實際적으로 保障될 수 있다고 하는 與論도 加入支持의 要因이 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設問 5.

貴下는 이번 UN 總會에서 東西獨의 UN 同時加入이 實現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表 5)

	교사	언론인	공무원	학생	기타	계
잘된 일이다	36 (90.0)	24 (80.0)	8 (80.0)	85 (77.3)	10 (100)	163 (81.5)
잘못된 일이다	1 (2.5)	2 (6.7)		8 (7.3)		11 (5.5)
모르겠다	3 (7.5)	4 (13.3)	2 (20.0)	15 (13.6)		24 (12.0)
무 답				2 (1.8)		2 (1.0)
계	40 (100)	30 (100)	10 (100)	110 (100)	10 (100)	200 (100)

東西獨의 UN 同時加入은 잘된 일이라고 贊成하는 意見이 全體의 81.5%이고 못된 일이라는 意見이 5.5%의 少数意見으로 나타나고 있다. 東西獨은 分斷國이라고 하는 點에서 우리의 処地와 같고 또 強大國의 世界政策의 一環으로서 東西對立의 所産이라고 하는 點에서도 越南이나 中國의 分斷과는 性格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分斷國의 典型的 例로 指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民族 歷史에 있어서나 오늘날 國際環境의 與件등 여러 點에서 韓國과 逸은 相異한 條件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民族 두國家>라고 하는 브란트의 東方接近政策은 우리에게 實感을 주는 政策은 아니었다. 그러나 처음으로 分斷國家인 東獨과 西獨이 同時에 UN에 加入했다고 하는 事實은 우리들에게 UN 加入의 可能性과 國際政治의 冷酷한 現實性을 敎訓처럼 示唆해 주고 있는 것 만은 事實이다. 따라서 우리의 對 UN 政策에 鼓舞的인 前例가 되기도 했지

만 지금까지 封鎖되어 왔던 分断국의 UN 加入이 可能하다는 前例를 만들었다는 点에서 一応 잘한 일이라고 하는 反應이 나옴직 하다고 본다。

設問 6.

貫下는 東西独逸의 UN 同時加入을 어떻게 보십니까?

(表 6)

	교사	언론인	공무원	학생	기타	계
분단을 영구화 할 우려가 있다	9 (22.9)	9 (26.7)	8 (80.0)	31 (28.2)		56 (28.0)
국제적협조하에 평화통일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16 (40.0)	8 (26.7)		26 (23.6)	7 (70.0)	57 (28.5)
국제정치의 현실에 현명하게 대처한 조치이다	15 (37.5)	14 (46.6)	2 (20.0)	49 (44.5)	3 (30.0)	83 (41.5)
무				4 (3.7)		4 (2.0)
계	40 (100)	30 (100)	10 (100)	110 (100)	10 (100)	200 (100)

東西独의 UN 同時加入이 設問 5에서도 잘된 일이라고 評價되었지만 本項에서는 同時加入이 民族分断을 永久化한 것이냐 아니면 國際情勢에 비추어 賢明한 政策이라고 보느냐 하는 것을 質問하기 爲한 것이었는데 分断을 永久化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意見이 全体의 28%이고 國際政治의 現實에 賢明하게 対応한 措置라고한 意見이 41.5%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東西独의 民族 分断 國家 政策이야 말로 独逸民族의 將來를 위해 兇惡的인 選擇이 었다고 評價하는 것 같다。

設問 7.

貴下는 東西獨의 UN 同時加入으로 東西獨關係가 어떻게 發展될 것으로 展望하십니까?

(表 7)

	교사	언론인	공무원	학생	기타	계
유류에 있어 국가간의 이념분쟁이 완화될 것이다	16 (40.0)	17 (56.7)	3 (30.0)	44 (40.0)	5 (50.0)	85 (42.5)
앞으로의 동서독간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1 (2.5)			4 (3.9)		5 (2.5)
동서독은 영원히 통일되기 어려울 것이다	5 (12.5)	6 (20.0)	3 (30.0)	36 (32.7)	1 (10.0)	51 (25.5)
독일의 통일이 더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다	17 (42.5)	5 (16.7)	4 (40.0)	24 (21.8)	4 (40.0)	54 (27.0)
무 답	1 (2.5)	2 (6.6)		2 (1.9)		5 (2.5)
계	40 (100)	30 (100)	10 (100)	110 (100)	10 (100)	200 (100)

東西獨의 UN 同時加入으로 因하여 歐洲에 있어서 뿌력間的 緊張이 緩和될 것이라는 意見이 42.5%라고 하는 多數意見으로 나타나고 獨逸統一의 展望이 밝아 졌다고 하는 樂觀的인 見解가 27%。 오히려 統一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悲觀的 見解가 25.5%로 比等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興味로운 反映이 아닐 수 없다。

設問 8.

貴下는 朴 大統領의 6.23 平和外交政策 特別宣言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表 8)

	교사	인론인	공무원	학생	기타	계
우리의 국가이익에 불리한 후퇴적 선언이다				4 (3.6)	7 (70.0)	11 (5.5)
우리의 외교정책의 현실화이고 적극적인 외교 자세이다	36 (90.0)	25 (83.4)		70 (63.6)	2 (20.0)	133 (66.5)
실질적으로 북한정권을 승인한 것이 되어 버렸다	4 (10.0)	3 (10.0)	8 (80.0)	30 (27.3)	1 (10.0)	46 (23.0)
외교전략상의 강섬을 확보하게 되었다		1 (3.3)	1 (10.0)	2 (1.9)		4 (2.0)
무 답		1 (3.3)	1 (10.0)	4 (3.6)		6 (3.0)
계	40 (100)	30 (100)	10 (100)	110 (100)	10 (100)	200 (100)

6.23 外交宣言은 韓國의 對 UN 對策에 新紀元을 이루는 一大政策 換으로서 이 宣言은 國內外的으로 至大한 關心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만은 事實이다. 一般的으로 이 宣言이 南北關係를 現實化한 積極的인 外交姿勢라고 보는 意見이 全體의 66.5%를 차지하고 있는데 反해 實質的으로 北韓政權을 承認해 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 意見이 23%나 되고 있다는 事實은 注目할 問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勿論 23%라고 하는 數가 많다는 意味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知識層의 2割以上이 6.23 外交宣言에 對하여 不安한 敗北意識을 갖게 된다면 이에對한 充分한 理解와 自信을 불러 일으켜 주어야 할 對策이 時急하다고 생각한다. 北韓 共產

主義者들의 好戰性과 最近 四大軍事路線에 依한 그들의 殘惡性이
우리國民들의 心理的 負擔感을 주고 있는 이때 마치 길드리지 않
는 亂暴한 野獸를 울 가까이 接近시켜 善良한 사람들에게 怯을
주게 되는 強迫을 解消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設問 9.

貫下는 南北韓 UN同時加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表 9)

	교사	언론인	공무원	학생	기타	계
적극찬성한다	31 (77.5)	23 (76.7)	6 (60.0)	60 (54.5)	9 (90.0)	129 (64.5)
적극반대한다	4 (10.0)	3 (10.0)	1 (10.0)	28 (25.5)		36 (18.0)
모르겠다	4 (10.0)	3 (10.0)	3 (30.0)	15 (13.7)		25 (12.5)
무 답	1 (2.5)	1 (3.3)		7 (6.3)	1 (10.0)	10 (5.0)
계	40 (100)	30 (100)	10 (100)	110 (100)	10 (100)	200 (100)

南北韓 UN同時加入을 적극 찬성하는 意見이 全体の 64.5%로
나타났고 이와는 反對로 積極 反對한다가 18%로 나타나고 있는
데 이것은 設問 5의 東西獨 同時加入이 잘 되었다고 하는
81.5%의 多數意見에 比하면 約 20%가 떨어진 統計이지만 여기
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남의 나라의 경우와 우리民族의
問題는 보는 觀點에서나 생각하는 觀點에 있어서 慎重한 考慮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特히 設問 8에서 볼 수 있는바
과 같이 6.23 外交宣言은 實質的으로 북한정권을 承認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고 하는 23%의 意見은 북한정권의 承認에 不滿을 갖
는 否定的 意見이 支配的인 것이라고 볼 때 同時加入을 積極贊成

하는 64.5%도 6.23 外交宣言에서 前提하고 있는 統一에 障碍가 되지 않고 UN 會員國 多數의 뜻이라면 過渡的인 暫定措置로서 同時加入이 되어도 좋다는 意見과 無條件 南北韓 同時加入이 實現되어야 한다는 意見이 共存하고 있음을 考慮해야 할 줄 믿는다.

設問 10.

貴下는 南北韓 UN 同時加入을 贊成하는 境遇 贊成하는 理由는 무엇입니까?

(表 10)

	교사	언론인	공무원	학생	기타	계
북한을 평화적인 국제질서에서 순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13 (39.4)	9 (36.0)	3 (30.0)	28 (38.4)	5 (50.0)	58 (38.5)
북한의 침략행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5 (15.1)	5 (20.0)		16 (21.9)	1 (10.0)	27 (17.8)
남북한이 국제적 협력하에 평화적 통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15 (45.5)	11 (44.0)	4 (40.0)	29 (40.7)	4 (40.0)	63 (41.7)
동.서독일이 이미 동시 가입해 있기 때문에						
무 답			3 (30.0)			3 (2.0)
계	33 (100)	25 (100)	10 (100)	73 (100)	10 (100)	51 (100)

南北韓 同時加入을 贊成하는 理由로서 同時加入이 實現되면 南北韓이 國際的 協力下에 平和的 統一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意見이 41.7%이고 北韓을 UN에 加入시켜 平和的인 國際秩序에 醇化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意見이 38.5%, 北韓의

好戰的 侵略意圖를 抑制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意見이 17.8%로서 結局 北韓과의 關係를 맺어야 한다는 見解가 支配的인 것 같다。

設問 11.

貴下가 南北韓 UN 同時加入을 反對하는 境遇 어떤 理由에서 反對하십니까?

(表 11)

	교사	언론인	공무원	학생	기타	계
북한이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승인을 받게 되기 때문에	8 (30.7)	1 (11.1)	3 (50.0)	32 (55.2)		44 (43.1)
우리 와 동등한 국제적지위를 얻게 되기 때문에	8 (30.7)	3 (33.3)	2 (33.3)	15 (25.9)	2 (66.7)	30 (29.4)
UN의 권위와 권능을 무시해 왔기 때문에	3 (11.5)	4 (44.4)	1 (16.7)	10 (17.2)	1 (33.3)	19 (18.6)
UN에서 침략자로 낙인을 받았기 때문에	7 (27.1)	1 (11.1)		1 (1.7)		9 (8.9)
무 답						
계	26 (100)	9 (100)	(100)	58 (100)	3 (100)	102 (100)

南北韓 同時加入을 反對하는 理由로서 43.1%가 北韓이 實質的으로 國際的인 承認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고, 29.4%는 우리 와 同等한 國際的 地位를 얻게 되기 때문이고, 18.8%는 北韓이 UN의 權威과 權能을 無視해 왔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設問 12.

다음은 南北韓 UN 同時加入이 實現된다고 보십니까?

(表 12)

	교 사	언론인	공무원	학 생	기 타	계
실현 될 것이다	29 (72.5)	12 (40)	6 (60.0)	65 (59.1)	6 (60.0)	118 (59.0)
실현 되기 어려운 것이다	11 (27.5)	14 (46.8)	4 (40.0)	43 (39.1)	3 (30.0)	75 (37.5)
금년 총회에서는 어려운 것이다		2 (6.6)				2 (1.0)
무 답		2 (6.6)		2 (1.8)	1 (10)	5 (2.5)
계	40 (100)	30 (100)	10 (100)	110 (100)	10 (100)	200 (100)

南北韓 同時加入이 實現된다는 意見이 59%, 實現되기 어렵다고 보는 見解가 37.5%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設問 8에서 表示된 南北韓 UN 同時加入 問題에 對한 贊.反 意見과 相關되는 問題이다.

設問 13.

貴下께서는 南北韓 UN同時加入이 實現될 수 있다면 어떤 方法에 依해서 實現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表 13)

	교사	언론인	공무원	학생	기타	계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10 (25.0)	4 (13.3)	5 (50.0)	22 (20.0)		41 (20.5)
우방 여러나라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21 (52.5)	13 (43.3)	2 (20.0)	63 (57.3)	7 (70.0)	106 (53.0)
UN 헌장의 기본 정신에 따라서	6 (15.0)	4 (13.3)	3 (30.0)	10 (9.1)	2 (20.2)	25 (12.5)
국제정세의 유리한 전개		1 (3.3)		1 (0.9)		2 (1.0)
북한당국의 태도여하에 따라						
무 답	3 (7.5)	8 (26.8)		14 (12.7)	1 (10.6)	26 (13.0)
계	40 (100)	30 (100)	10 (100)	110 (100)	10 (100)	200 (100)

UN加入은 友邦의 積極的인 協調에 依해서 實現되어야 한다는 意見이 53%인데 이는 UN會員國의 加入에는 憲章 第4條規定에 依해 安全保障理事會 常任理事國들의 全員同意에 依한 勸告가 必要하고 아울러 總會에서의 加入同意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國際的 協調를 重視하고 있는 것 같으나 한국정부의 積極적인 努力과 外交力量의 強化는 국제협조를 擴大하는 基本的인 問題로 생각된다.

設問 14.

貫下께서 南北韓 UN同時加入이 實現될 수 있다면 언제쯤 이루어 질것으로 보십니까?

(表 14)

	교사	언론인	공무원	학생	기타	계
금년에	3 (7.9)		1 (11.1)	4 (4.2)		8 (4.7)
2년 이내	10 (26.4)	10 (43.5)		26 (47.3)	1 (11.1)	46 (26.6)
5년 이내	14 (36.8)	5 (21.8)	2 (22.2)	27 (28.4)	7 (77.8)	55 (31.8)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11 (28.9)	8 (35.7)	6 (66.7)	38 (40.1)	1 (11.1)	64 (36.9)
계	38 (100)	23 (100)	9 (100)	95 (100)	9 (100)	173 (100)

어떻게 보면 이 質問은 아주 막연한 問題인 것 같은데 대략 UN加入의 時期를 어느程度 가까이 보고 있는가 把握해 보기 위해서 設問에 넣어 보았다. 나타난 回答 亦是 재미있는 結果가 나왔다. 今年에 加入된다는 意見이 4.7% 2年以内가 26.6%, 5年以内가 31.8%로 나타났고 더 많은 時間이 必要하리라는 意見이 36.9%로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든 5年以内에 南北韓이 UN에 같이 들어 가게 될 것이라는 意見이 63.1%가 되고 있음은 그 實現의 時期를 相當히 가깝게 보고 있음을 示唆해 주고 있다.

設問 15.

貴下께서는 南北韓 UN 同時加入의 實現이 어렵다고 할 때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表 15)

	교사	공무원	언론인	학생	기타	계
북한의 반대로	10 (33.3)		14 (56.0)	42 (53.9)	5 (71.4)	71 (48.7)
공산권 국가들의 반대로	19 (63.4)	5 (83.3)	9 (36.0)	32 (41.0)	2 (28.6)	67 (45.9)
서방측의 수적열세로	1 (3.3)	1 (16.7)	2 (8.0)	4 (5.1)		8 (5.4)
계	30 (100)	6 (100)	25 (100)	78 (100)	7 (100)	146 (100)

南北韓 同時加入을 沮喪하는 要因을 北韓의 反對때문이라고 보는 見解가 48.7%이고 또 共産國家들의 反對로 加入의 實現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45.9%인데 西方側의 數的 劣勢로 加入이 實現될 수 없다는 意見이 5.4%로 나타나고 있다. 結局 UN 同時加入이 實現되기 어려운 要因은 北韓과 其他 共産諸國의 反對때문이라고 하는 意見이 94.6%나 되는 것을 보면 韓國의 UN 加入에 對한 共産側의 對 UN 政策을 間接적으로 說明해 주고 있다고 본다.

設問 16.

貴下께서는 將次 韓国の 對UN外交政策이 어떻게 遂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表 16)

	학생	교사	공무원	언론인	기타	계
적극적인 중립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23 (23.9)	11 (27.5)		12 (40.0)		46 (23.0)
또 중공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32 (29.1)	5 (12.5)	4 (40.0)	10 (33.3)		51 (25.5)
비적성공산권과의 조속한 통상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25 (22.7)	15 (40.0)	3 (30.0)	3 (10.0)	7 (70.0)	54 (27.0)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해야 한다	28 (25.5)	7 (17.5)	2 (20.0)	5 (16.7)	2 (20.0)	44 (22.0)
무	2 (1.8)	1 (2.5)	1 (10.0)		1 (10.0)	5 (2.5)
계	110 (100)	40 (100)	10 (100)	30 (100)	10 (100)	200 (100)

韓国の 對UN外交政策은 非敵性 共產圏과의 早速한 通商關係를 樹立해야 한다고 하는 意見이 27%이고 又 中共和 中共과의 外交關係를 樹立해야 한다는 意見이 25.5%인데 적극적인 對中立国外交의 強化가 23%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總括해 보면 又 中共和 中共을 위시한 共產國家와 通商 및 外交關係를 樹立해야 한다는 意見이 全體의 52.5%가 되고 있음은 數年前의 對共觀이 크게 變化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70年代의 國際政治가 脫이데올로기의 實利外交에 力點을 두고 있는 國際的 趨勢의 反映이라 생각된다.

2. 標本分析

設問에 反映된 內容을 綜合的으로 檢討해 볼 것, 같은 國際 聯合은 強大國의 權力政治가 合法的으로 作用되어 지기도 하나 國際 平和와 安全을 위해 必要한 一般的 國際機構로서 한국과는 大端히 緊密한 關係를 맺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分斷國이란 理由때 문에 아직까지 UN의 加入이 拒否되어 온 것은 그만큼 分斷國問題가 東西冷戰의 Issue로 取扱되어 왔다는 것을 말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立場에서 UN에 加入해야 할 理由는 充分하고 또 UN 加入을 위해 많은 努力을 해왔다. 한국이 UN에 加入해야 한다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唯一한 合法政府를 確認하는 길이 되겠고 아울러 UN會員國과의 協力關係를 더욱 增進 할 수 있는 基盤을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UN 加入은 圧倒的 多數가 支持하고 있는 것으로 意見이 모아 졌다. 그러나 東西對立이 緩和되지 않는 限 分斷國들의 UN 加入問題는 難望한 일로 생각되어 왔는데 70年代에 접어들면서 國際政治는 多元的인 構造下에 脫이 데올르기의 實利追求의 趨勢를 보이기 始作했고 東西間의 對立이 둔화하면서 強大國間에는 緊張緩和를 위한 關係改善과 協商이 試圖되어 마침내 強大國間에는 制限된 協力關係가 顯저하게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東西關係의 改善이 이번 28次總會에서 東西獨의 UN同時加入을 實現시킬 수 있었다고 본다. 어떠한 東西獨의 UN同時加入은 分斷國인 韓國에게는 希望的인 事件으로 받아 드려지고 있는 것 같다. 81.5%의 多數意見이 加入이 잘 된 일이라고 했고 東西獨은 국제정치의 現實에 賢明하게 對處했고 앞으로 國際的인 協調下에 平和的인 統一을 推進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意見이 全體의 70%가 되는 것을 보면 東西獨의 국제정치

적 立場과 現實을 잘 理解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한국의 6.23 外交宣言도 進取的인 外交姿勢이고 現實性이 있는 外交政策이라고 過半數의 多數가 支持하고 있지만 國家利益에 不利한 後退的인 政策이라고 하는 意見과 북한을 우리와 同等한 地位로 承認해 버린 結果가 되었다고 反對하는 意見이 29%가 된다는 事實은 注目을 해야 할 것 같다。 勿論 이 意見은 철저한 反共意識을 말해주는 數字이긴 하나 南北關係를 새롭게 定立하는 이 重大한 外交政策에 知識人의 約3分之1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事實은 가볍게 넘겨 버릴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東西獨의 同時加入에 영향을 받기도 했겠지만 約 65%程度가 南北韓 UN同時加入은 적극 贊成하고 있는데 이들이 贊成하는 理由는 북한을 國際社會에 끌어 내어 國際秩序에 醇化시켜 그들의 侵略政策을 制動시킴으로서 將次 平和的인 統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南北韓 UN同時加入에 대해서는 6.23 外交宣言에 나타난 否定的인 少數의 反應보다는 훨씬 많은 數가 從來 北韓은 UN의 權威를 無視해 왔고 심지어 UN에 正面으로 挑戰을 했던 前歷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同等한 資格을 賦與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立場이 反映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知識層이 얼마나 철저한 對共觀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으로서 마음 든든한 일이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情勢變化에의 適応이 鈍한 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問題點이 있으면서도 南北韓 UN同時加入이 5年以內에 實現될 可能性이 있다고 보는 見解가 多數인 것을 보면 UN에의 加入은 多分히 국제정세의 영향을 받게 되는 問題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또한 加入問題에 있어서도 友邦의 積極적인 協調과 共

産國家와의 漸進的 關係改善이 必要하다는 意見이 支配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韓国外交의 進取性을 期待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다만 進取的인 外交를 遂行할 수 있는 外交力量의 強化와 平和的인 統一外交에 國民의 知慧와 總和가 빈틈없이 調和될 수 있도록 하는 方案만이 問題일 것 같다。

V. 對 備 策

6.23 外交宣言에 依해 南北韓 同時 UN 加入이 提議되자 國際的인 反應도 好意的으로 論評되고 있으며 國內與論 亦是 南北關係를 現實化한 自主外交 政策宣言으로서 主體性을 드높인 決斷이라고 생각하는 意見이 支配的인 것 같다.

그러나 識者層 一部에서는 南北韓 UN 同時加入은 우리의 對 UN 外交의 後退가 아니냐하는 誤解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國際情勢가 完全히 脫이레올르기化하여 우리에게 不利한 條件이 加해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憂慮한 나머지 이제는 우리 社會에서 反共도 必要없게 되어버린 것 처럼 自信感을 잃게 되지 않을까 念慮되는바 있다. 設問分析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應答者 大多數가 南北韓 UN 同時加入이 實現되어야 한다고 同意하더라도 한편으로는 北韓의 現實的 認定이라고 하는 問題때문에 慎重한 反應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同時 UN 加入에 따른 우리의 立場과 將次 祖國의 平和統一을 이룩하는 槓盤으로서 이 政策이 반드시 必要하다는 當爲性은 보다 幅넓은 國民的 次元에서 說明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政策의 實行過程에서 提起되는 問題點을 그때 그때 正確히 分析해서 이에 對한 適宜한 對備策을 講究함으로서 總力外交의 展開를 爲한 態勢에 滿全을 期할 수 있으리라 믿어 다음과 같은 對備策을 建議한다.

1. 平和統一 外交政策 宣言의 意義와 背景을 보다 넓은 民間레벨에서 國民들에게 弘報토록 한다. 즉 祖國의 平和的 統一이 民族 至上의 課業이며 韓半島의 平和는 우리民族의 自主的인 努力으로

定着維持해야 한다는 점과 互惠平等의 原則下에 理念과 體制를 달 리하는 國家까지도 包含한 世界 모든 國家와 開放外交를 實現해서 國際緊張緩和에 寄與하고 궁극적으로는 國際平和에 이바지 해야 한 다는 점을 理解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왜 우리는 UN을 비롯한 國際機構에 北韓의 參席을 默認하는 가를 솔직하게 밝혀서 이에대한 得失을 國民이 充分히 納得하도록 해야한다. 同時에 北韓과의 UN同時加入은 韓國의 正統性을 포기 하는것이 아니라는 것도 充分히 周知시켜야 할 것이다.

3. 安保 統一問題에 관한 國民적 支持基盤의 擴大方法으로 拳論되 어지고 있는 問題이지만 이 南北韓 同時UN加入問題에 관한 國民 의 理解를 높이는 方法도 核要員을 確保해서 이核을 中心으로 擴散하는 것이 効果적인 方法으로 생각된다. 例를 들면 大學에 있 어서 씩클別 세미나의 形式이라든가 研究所單位의 小規模講演會등의 開催形式은 比較的 下向式的인 弘報活動이 아닌 平面的인 研究討論 活動으로 더욱 効果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4. 大學討論 全般에 대해 國際情勢와 韓半島(韓民族)問題에 관한 特講形式의 教育을 實施하여 보다 현실적인 국제정세속의 韓國 問題에 切實한 關心을 갖고 올바른 時局觀을 堅持하도록 해야 할것 으로 본다. 本 調査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當然한 UN의 役割과 存在意義를 評價하는데도 教師들은 百%의 肯定을 보이고 있는데 比해 大學生의 경우에는 훨씬 下廻한 線에서 肯定的인 見解를 表示하고 있는 것을 볼때 어떤 問題를 受容함에 있어서 大學生들의 意識과 態度가 比較的 直線的인 傾向을 띠우고 있는것 같다. 故 로 大學生들에게 바람직한 時局觀을 갖도록 하는 問題는 무엇보다

도 重要한 問題라 하겠다.

5. 韓國의 對 北韓政策을 포함한 對 共產圈 政策과 對 UN政策이 過去의 封鎖로부터 開放에로 政策變更을 갈 수 있는것은 그동안 祖國 近代化 作業으로 国力이 伸長되고 教育 文化水準이 向上된 結果로서 自信있는 善意의 競爭임을 確信토록 해야 한다.

우리 社會의 知識인들이 北韓 共產主義者와의 對決에 있어서 自信感을 갖고 前衛的 活動을 할 수 있도록 확고한 信念을 갖게 하는 것은 大端히 重大한 問題가 아닐 수 없다.

6. 對 北韓政策에 있어서 現實的 接近이 不可避한 국제정치적 환경을 T. V 라디오 新聞등 各種 메스콤을 通해서 國民앞에 說明하고 討論해서 北韓의 統一政策과 UN政策의 虛構的 矛盾性을 周知시키는 弘報活動을 계속적으로 推進해 감으로서 國民들도 政府의 새로운 外交政策의 當爲性을 漸次 認識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7. 南北韓 同時 UN加入을 적극 反對하고 있는 北韓의 不當한 論理的 矛盾과 實際로도 言行이 一致하지 않는 北韓의 對 UN戰略을 폭로하여 그들의 不當性을 指摘하므로써 그들의 主張과 같이 우리의 6.23 外交 宣言이 民族分斷을 永久化하는 措置가 아니고 오히려 民族統一의 基盤造成에 크게 寄與 할 수 있는 主張임을 理解시켜야 하겠다.

前에도 그래왔지만 그들만이 真正으로 分斷이 아닌 統一을 希求하는것 처럼 국제무대에서 宣傳하는 것을 銳意注視해서 빈틈없는 豫防對策을 세워야 할 것이다.

8. 各分野에서 指導者를 選擇하여 統一政策과 對 北韓政策에 관한 세미나를 開催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屬해있는 職場과 地域社

회에 돌아가서 이러한 세미나를 다시 갖도록 計劃해야 하겠다.

이러한 行事は 財政的인 뒷받침이 따라야 할 問題이지만 效果的인 国民運動의 形式으로 展開되어야 할 것이다.

9. 第28次 UN總會에서의 韓國 問題處理에 따른 會員國의 趨勢를 說明하고 豫想되는 將來의 國際情勢속에서 現在의 韓國 外交政策이 國家利益의 增進과 韓國의 統一 安保에 有益하다고 하는 妥當性을 周知시켜야 할 것으로 믿는다.

Ⅵ . 結 論 (綜 合 分 析)

6.23 平和外交宣言은 民族分斷의 悲劇을 現實的으로 止揚하고 自主的 平和統一을 이룩하려는 5천만 民族의 哀切한 念願을 풀기 위한 呼訴이며 同時에 모든 나라들에 對한 韓國의 平和 善隣 外交의 再闡明인 것이다。 祖國의 統一問題에 關해서 平和統一의 原則, 韓半島 平和의 大前提, 誠實과 忍耐로서의 南北對話 持續을 提示했고 國際機構의 參加問題에 있어서 北韓의 國際機構 參與 默認, 北韓과의 國際聯合 同時加入 默認을 宣言했을 뿐만 아니라 國際社會에 對해서는 互惠平等의 原則下에 모든 國家에게 門戶 開放 平和 善隣이 對外政策의 基本임을 밝힘으로서 國內外에 좋은 反應을 불러 일으켰던 것도 事實이다。

이제 우리는 緊張緩和의 國際潮流속에 과감히 뛰어들어 民族의 위신과 尊嚴을 維持하면서 世界平和에 能動的으로 寄與 할 수 있는 時點에 와 있다。 그념에도 不拘하고 6.23 外交宣言의 第4項과 第5項에 나타나있는 對北韓政策의 宣言은 UN을 비롯한 其他 國際機構에 北韓과 同時加入을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서 勿論 統一에 障礙가 되지 않는다는가 過渡的 措置라고 하는 條件이 따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不法的인 集團으로 取扱해 오던 北韓 當局을 우리 스스로가 國際社會에 끌어드려 마치 韓國과 同等한 地位로 認定하는 듯한 措置를 取하는 것이 韓國의 正統性을 堅持함에 있어서나 實際的으로 韓國의 國家利益을 追求함에 있어서 利로운 일이나 하는 問題에 對하여 知識層間에도 意見을 달리 하고 있는 傾向이 없지도 않는 것 같고 더우기 對北韓政策의 轉換에 否定的인 立場을 取하고 있는 知識人 數가 적지 않다고

하는 事實을 勘案 할 때 總力外交의 遂行을 위한 時急한 對策이 講究되어져야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知識人은 많은 大衆들의 輿論形成에 至大한 影響力을 갖고 있다는 點에서도 이들 Public Opinion Maker 들에 對한 南北關係의 現實化와 統一에의 接近모색의 當然性을 새롭게 認識할 수 있는 努力이 投入되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急進的인 變化에 好意的인 反應을 잘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知識層과 6.25 動亂以後 北韓 共產主義者들에 對해 갖고 있는 敵對意識과 不信이 生理的으로 固着되어 있는 知識層에게 北韓의 地位를 어떠한 形式으로든지 向上시키는 問題에 對해서는 同意를 얻기가 어려운 것임은 當然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反應이 自由民主主義를 信奉하는 知識人들의 意見이라고 보아질 때 걱정해야 할 性質의 問題는 決코 아니지만 6.25 를 體驗하지 못한 보다 젊은 知識層(高等學校學生을 포함한 大學生과 이 年輩의 階層)에 對한 關心은 任意깊게 주어지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最近 우리 周圍에서 論議되고 있는 知識層의 南北韓 UN 同時加入問題에 對한 올바른 認識은 國際情勢의 變化와 韓國問題의 解決을 위한 國內外的 關係를 어떻게 理解시키고 接近 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에 變化하는 國際的 環境과 이에 對應하는 對策사이의 間격을 좁히는데 最善의 汎國民的 努力이 傾注되어야 할 것으로 믿어 疑心치 않는다。

(註1) Leonard, L.L : International organization,
McGraw-Hill Book Co, New york,
1961. P.75

(註2) Claude Jr. : Swords into plowshares
Random House New york, 1958. PP.98~110

(註3) Rosalyns Higgins :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the politic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P.41

(註4) Goodrich, L.M. : The United Nations
A Crowell Co. New york, 1957
PP.90~91

(註5) U.N 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work of the organization. 1958, P.26

(註6) Hayward R. Alke Jr, and Bruce M. Russett : World
politics in the General Assembly,
New Haven, Yale Univ. press, 1965.
P.175

(註7) 決議案의 內容을 보면

- ① 兩北韓의 同時 UN 加入 勸告
- ② 南北對話의 계속 지속
- ③ UNCURK 의 自進解体承認
- ④ 駐韓 UN 軍의 계속 주둔 必要性

(註 8) 決議案 內容은

- ① UNCURK 解体
- ② 駐韓外國軍의 UN 旗 使用禁止
- ③ UN 軍 司令部 解体
- ④ 駐韓外軍의 全面撤收

(註 9) 지난 6月 슈나이더 美國務次官補代理는 UN에서 駐韓美軍 撤收 決議案이 몇年内에 可決되더라도 駐韓UN軍司(UNC)에 는 數十名의 兵力밖에 없으므로 美軍만은 54年에 調印된 韓美相互防衛條約에 依拠 現在대로 한국에 駐屯 할 수 있다고 했고,

포터 美國務省 政務担当次官도 美軍의 駐屯이 UN決議에 依拠한 것이 라기 보다는 韓美相互防衛條約에 依拠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